

소리로 소통하는 클래식과 연극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후마니타스(후마) 예술축전이 5년 만에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 후마 예술축전은 강의실에서의 예술 교육을 밖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행사다. 우리신문은 야외 공연, 크라운 공연, 시음악 공연, 미디어아트, 네오관 댄스공연으로 구성된 총 6번의 행사에 직접 찾아가 생생한 현장을 전하려 한다. 두 번째로 지난달 31일 열린 <무대 위의 후마세상: 소리로 소통을 잇다>에 다녀왔다.

【서울】<무대 위의 후마세상: 소리로 소통을 잇다>는 후마의 음악·연극 교강사와 학생이 준비한 무대였다. 음악과 연극, 연주와 작곡, 클래식과 국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협연을 만들어냈다. 이번 공연은 교실에서의 교양수업이 무대로 나와 관객과 소리로 소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연은 정광준 교수의 '바흐-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3번 부레'로 시작됐다. 이어 김준영 교수가 '정대석-무영탑'을 거문고 연주로 선보였다. 이후 배민준(작곡 2016) 씨 작곡의 '거문고와 첼로, 피아노를 위한 모놀로그'를 정 교수, 김 교수와 조은아 교수가 피아노로 연주했다. 배 씨는 박주영 판사의 2019년 울산 3인 자살 미수 사건 판결문에 영감 받아 국악과 클래식의 만남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다음 공연으로 '클래식 기타 연주

와 감상' 수강생 5명이 '하바네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기타 5중주로 연주했다. 기타5중주를 연주한 문동희(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6), 황주화(약학 2024), 염서운(약학 2024), 장진아(지리학 2021) 씨는 "클래식 기타를 처음 배우지만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즐겁게 준비했다"며 "큰 공연장에서 연주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공연을 하게 돼 대학 생활 중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또 다른 교양, '무대위의세상: 연극, 오페라, 뮤지컬'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전원이 '연극: 심쿵했던 순간'을 공연했다. 조연출을 맡은 한혜지(연극영화학 2022) 씨는 "이번 공연은 연극이라기보다 퍼포먼스에 가까운 작업을 했다. '심쿵'이라는 키워드를 정하고 각자의 심쿵을 반복되는 박수, 박자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창발시킨 공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자가 듣는 수업이 아닌, 교양이었기에 연극에 대한 이해도가 각자 달랐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하나 되는 공연을 만들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후 공연은 박상희 교수의 '거스름-Embraceable You', 박 교수와 조은아 교수의 피아노 연탄곡 '모차르트: 4손 연탄을 위한 소나타 D장조 K.381' 연주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강금비(기악 2024) 씨의 바이올린과 조 교수의 피아노, 정 교수의 첼로가 함께 어우러진 '베토벤: 피아노 트리 오 Op. 97'로 막을 내렸다.

'2024 청년 양성평등 포럼' 개최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국제】경기도가 주최하고 우리 학교 인권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한 '2024 청년 양성평등 포럼'이 지난 30일 피스홀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AI기술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과 AI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주제였다.

1부에는 류석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가 'AI시대, 양성평등을 향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2부에는 '양성평등을 위한 AI 시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한 류석영 교수와 남석영 동국대학교 철학과 강사의 토크콘서트에 이어졌다.

1부에서 류석영 교수는 AI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거론하며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가 함께,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SW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가속화된 기술 발전에서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AI와 관련한 문제 사례로 그는 '이루다'를 언급했다. '이루다'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성희롱 및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에 류 교수는 "'이루다' 논란이 일어난 이유가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평등에 대한 우리의 고찰이 부족해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1부 강의를 마무리하며 "미국에서는 벌써 AI 권리장전에 대한 법률이 생기는 등 국제적으로도 AI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또한



지난 30일 피스홀에서 '2024 청년 양성평등 포럼'이 개최됐다. (사진=원희재 기자)

AI 기술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2부에서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와 여러 불평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류 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인간이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서 찾았다. 그는 "AI 또한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며 "데이터의 다양성, 다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류 교수는 "라벨링 단계에서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라벨링이란 AI의 기반 데이터의 다양성을 논의하고 다듬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오류조차 결과 도출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남긴다. 이어 류 교수는 "그렇기에 데이터 라벨링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꼼꼼히 이루어져야 AI와 관련한 도의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류 교수는 "현재 AI 기술 데이터베이스 70% 이상이 백인 남성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며 "그렇기에 양성평등의 관

점에서 여성들에게 불리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AI에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위한 꾸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객들의 질문에 답을 하며 패널들은 무조건적으로 AI에 의지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류 교수는 AI를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AI가 주는 해답을 의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라며 "다양한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취사선택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 또한 "AI에서 도출된 정보를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에서 나온 정보를 맹신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히며 류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손지연(컴퓨터공학 2019) 씨는 "전공자로서 간과하고 있었던 관점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4-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1. 실습기간: 2024.12.23.(월) ~ 2025.02.28.(금)

2. 학교 지원 사항

가. 현장실습 참여학생 상해보험 가입 및 사전교육 진행

나. 신규기관 현장점검 및 학생 대상 현장실습 운영 중간 점검

다. 학점 인정: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실습일수 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실습일수	학점	실습일수	학점
20일 이상~40일 미만	3	40일 이상	6
• 서류심사시 현장실습 진행전공 소속 학과장(융합전공 지도교수)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으로 예비 학점을 결정			
※ 국제대학, 이과대학 화학과는 학과지침에 따라 단기현장실습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			
• 서류심사시 예비인정(수강)된 학점 범위 내에서 실습 종료 후 학점인정			
• 단기현장실습은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통산 21학점까지 인정)			
• 성적은 P(Pass)/N(Non-Pass)으로 처리			

3. 신청방법: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실습기관 조회 후 신청
가. 전공 유관 현장실습 원칙에 따라 본인의 본전공/다전공 모집 중인 기관만 조회 가능
나. 각 차수별 학생 신청 기간에 기관 리스트 확인 가능
다. 한 차수당 하나의 기관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라. 기관별 운영계획 및 모집요강을 면밀히 확인 후 지원

4. 문의처: E-mail, intern@khu.ac.kr, Tel. 서울C 02-961-2352, 국제C 031-201-3925

※ 2024-겨울학기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



경희대학교 LINC+사업단
KYUNG HEE UNIV.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